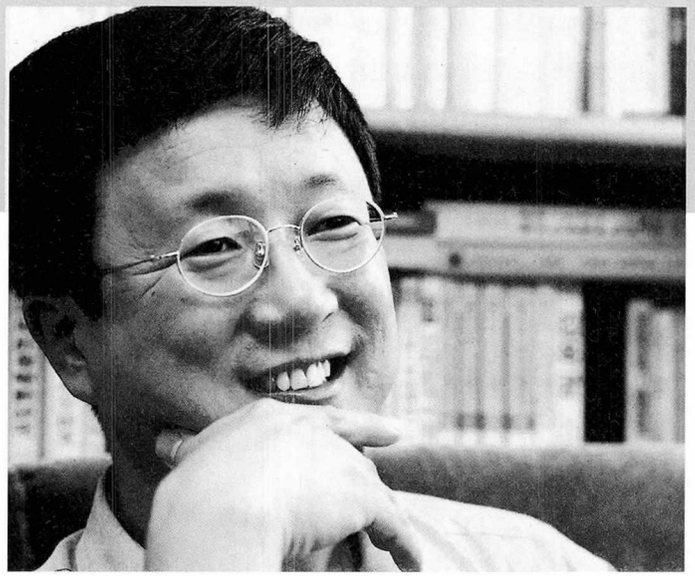
# 조선시대 사람들의 '살냄새' 찾아 떠난 역사학자

## 《일상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 1》 펴낸 정연식 교수



**이 책에 등장하는 이들은 기존의 역사학에서 외면받던 인물들이다. 정연식 교수는 이들을 주인공 삼아 조선시대의 생활상을 손에 잡힐 듯 재구성해간다. 그러나 정교수가 정작 이 책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은 철저한 계급사회인 조선시대와 허위의식에 가득 찬 양반들에 대한 비판이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마르크 블로크는 "훌륭한 역사가는 전설에 나오는 식인귀 같아서 사람의 살냄새를 찾아다닌다"고 했다. 정연식 교수(45, 서울여대 사학과)가 생활사에 주목한 까닭도 "생활사는 가장 가까이서 옛사람의 살냄새를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사람의 자취를 담아내는 학문입니다. 역사는 몇 사람의 '창조적 소수'에 의해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에 의해 움직이는 거죠."

### 옛 사람들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 그려

정교수가 펴낸 《일상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1》은 각종 연대기와 법전, 일기 등을 아우른 철저한 고증과 분석을 바탕으로 옛사람들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손에 잡힐 듯 그려보이고 있다. 정교수는 조선시대의 그야말로 자질구레한 일상들에 돋보기를 들이댔다. 이 책에는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 해 '해어화'(解語花)라고 불린 기생들의 삶의 애환, 쌍가마를 타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조선 여인들, 간담 서늘한 형장 풍경, 두창과 담배에 얽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등이 담겨 있다.

"사람의 삶이 빠지고 나면 역사학이 설 자리도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얽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잘한 일상 속에 파묻혀 살고 있죠. 지금까지 이 일상은 하찮은 일로 치부돼왔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모든 백성이 나라를 구하려고 고군분투했던 것은 아니었죠. 그 어떤 위인이나 혁명가보다 보통사람들이 위대하죠.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지금의 우리들이 하찮은 것이라고 무시해버릴 권리는 없습니다."

정교수가 보여주는 조선시대는 때로 읽는이들에게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며 무릎을 치게 만든다. 그 당시에도 오늘날의 '신고식'과 같은 '면신례'가 있었는데, 과거에 갓 합격한 신출내기 관료들은 고참에게 '술파티'를 열어줘야 했다는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살아가는 모습은 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또한 '아내무섬쟁이', 즉 공처가가 있기는 마찬가지였나 보다. 성호 이 익은 오죽했으면 "죽는 날까지 괴롭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내들을 수도 없이 보았는데, 늘 아내에게 기도 못 펴고 사는 못난 사내들은 그래도 집안을 제대로 보전하더라"고 말하기까지 했을까.

이 책은 또한 생활사를 다룬 책답게 기존의 역사학에서 다루지 않던 인물들이 대거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밤새도록 뜬눈으로 기다렸지만 기생이 들어오지 않아 화가 나 병풍에 시 한수 써놓고 말도 없이 떠나버린 중종 때의 암행어사 유 운, 꽃다운 나이에 나이 쉰살이 넘은 홍태손에게 시집 가 그에게 "너는 늙고 못생긴 것이 기운도 없으면서 뭘 믿고 혼인해서 나를 이렇게 시들게 하냐? 차라리 어서 죽어!" 하면서 남편을 구박하고 별거한 신씨, 서른 여덟살에 능참봉 자리를 얻었지만 관복을 살 돈이 없어 여기저기 빌리러 다니는 황윤석 등이 그들이다. 물론 추사 김정희나 북학파였던 초정 박제가 등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김정희는 마마로 얼굴이 얽은 인물의 예로, 박제가는 묘향산으로 유람가는 유람객으로 잠깐씩 '조연'으로 스쳐갈 뿐이다.

"생활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순신의 《난중일기》을 읽을 때 그의 우국충정과 뛰어난 전투활동에 대해서는 별로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몇 시에 일어나 집무를 했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으며,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는지에 더 관심을 갖죠."

정교수의 쉽고 톡톡 튀는 문장도 책 읽는 맛을 돋군다. 이 책에서 전문적인 역사용어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시종일관 평이하고 쉬운 문장으로 전개된다. 정교수는 평소 가능하다면, '논문은 잡문처럼, 잡문은 논문처럼' 써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는 말과 나귀를 그랜저와 티코에 비유하기도 하고 동서양의 속담을 적재적소에 끼워놓기도 한다. 그리고 '잠자리 파트너' 등과 같은 일상어를 활용해 읽는이를 웃음 짓게 만들기도 한다. 넉넉잡고 서너 시간 정도면 280페이지 정도의 이

책을 다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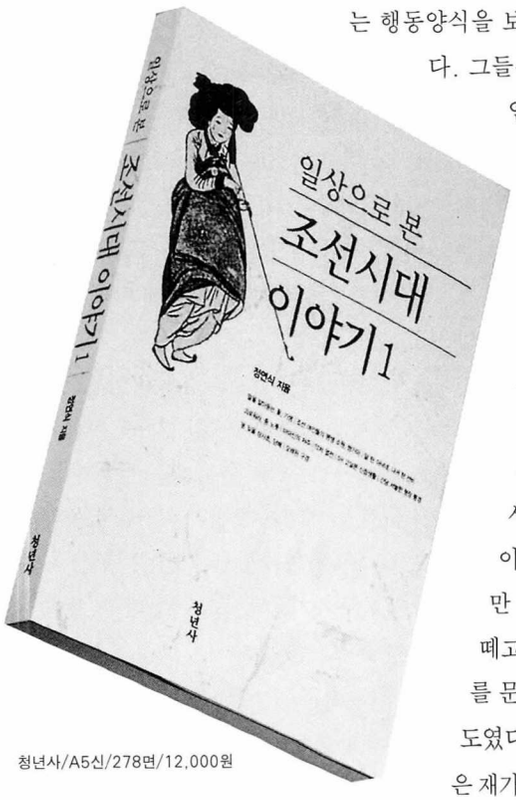
"잡문은 논문 한편 쓰는 것보다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합니다. 논문은 앞뒤만 맞으면 되지만, 다른 글은 읽는 사람에게 재미도 불러일으켜야 되죠. 또 잡문이라고 대충 쓰면 안됩니다. 철저한 고증과 분석이 뒤따라야죠."

### 조선시대 양반들의 파렴치한 모습 보여줘

그러나 정교수가 이 책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은 단지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활상만이 아니다. 정교수는 이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당시 조선시대가 얼마나 철저한 계급사회였는지 암묵적으로 시사한다. 가령 가마의 경우, 옥교는 3품 이상 관리의 어머니, 처, 딸, 며느리 외에는 탈 수 없었다. 이를 어길 때는 곤장 80대를 맞았다. 쌍가마는 2품 이상과 승지를 지낸 이들만 탈 수 있었다. 말도 노인이나 환자를 제외하고는 양반만이 탈 수 있었다. 일반백성이나 천민이 말을 타면 압수당하고 장 80대를 맞아야 했다. 영조 때의 윤태연은 무신 주제에 복건을 쓰고 다닌다고 탄핵을 받을 정도였다.

정교수가 이 책에서 독자들이 읽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양반으로 대표되는 지배계층의 파렴치한 모습이다. 궁궐 잔치에 참석해 서로 예쁜 기생을 파트너로 삼기 위해 다투는 양반, 그냥 걸어가기도 힘든 고갯길을 백성에게 가마를 메게 하고, 말을 안 들으면 뺨을 치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양반, 절에 종이를 만들어 바치라고 강요하는 양반 등 허위의식에 가득 찬 양반들의 모습을 읽다보면 절로 쓴웃음이 나온다.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정치가이자 학자였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살았죠. 하지만 그에 걸맞는 행동양식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위 계층에게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렇지 못했죠."



청년사/A5신/278면/12,000원

이 책은 조선시대에 관한 몇가지 오해도 풀어준다. 지금이야 어른 앞에서 담배를 삼가는 것이 상식이지만, 순조 때만 해도 아이들이 젖만 떼고 나면 곧바로 담뱃대를 문다고 왕이 한탄할 정도였다. 또한 평민 여자들은 재가, 삼가까지 했다.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조선 시대는 19세기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역시 TV를 비롯한 각종 매체들을 통해 왜곡돼 있고 또한 너무 양반 사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교수는 이 책의 제2권을 오는 9월 출간할 예정이다. 지금은 원고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느라 분주하다. 2권에서는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혼했는지, 옛사람들의 시간 관념은 어떠했는지, 끼니는 어떻게 때웠으며 한 끼 식사량은 얼마나 됐는지, 하수도 시설은 어떻게 정비돼 있었는지 다룰 예정이다. — 최갑수 기자

### 정치사와 경제사, 미술사까지 강의하는 '역사 잡화상'

정연식 교수는 이번 책을 펴낸 후 다시 들춰보기도 싫다고 했다. 그만큼 책을 쓰는 데 힘들었기 때문이다. 정치사나 경제사야 자료 정리가 잘 돼 있어 그나마 연구하기가 덜 어려운 편이지만, 생활사 연구는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를 찾고 모으기가 여간 고생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번 책에 실린 〈말을 알아듣는 꽃, 기생〉을 쓰기 위해 정교수는 A4용지 8백여장에 이르는 자료를 뒤져야 했다.

정교수가 생활사 연구에 뛰어든 것은 〈조선 후기 '역총'의 운영과 양역변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나서부터다. '한국역사연구회' 소속인 그는 어느날 모임에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몇 끼나 먹었을까"라고 말 한마디 꺼낸 것이 '화근'이 돼《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한국역사연구회, 청년사)에 〈조선시대 식생활과 음식문화〉를 쓰게 됐다. 이후 학회지에 말과 가마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그렇게 시대의 언저리를 떠돌다보니 어느새 전공이 생활사가 돼 있더란다.

생활사 연구를 하다보니 각종 민속 자료를 찾아야 할 일도 많았다. 특히 당시의 그림은 많은 사실을 전해 주고 있어 그림을 자주 들여다보게 됐다. 그림 보는 눈도 생겨 그는 '한국미술사'와 '불교 미술'도 강의하고 있다. 1995년에는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에 관한 논문도 썼다. 게다가 정교수는 '한국 정치사'와 '한국 경제사'도 강의하고 있다. 그는 그런 자신을 두고 스스로 '잡화상'이라고 표현한다.

정교수에게는 최근 몇년 동안 휴일이 없었다. 인터뷰를 한 날은 섭씨 37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정교수는 도서관 4층에 위치한 서너평 남짓한 그의 연구실에서 곧 출간될 예정인 2권을 마무리하느라 비지땀을 쏟고 있었다.

"명절에도 어김없이 연구실로 출근했습니다. 보통 아침 8시에 출근해 밤 9시나 돼야 연구실을 나서죠. 오늘은 너무 덥네요. 7시 정도면 퇴근해야겠어요."

정교수가 내년 초까지 출간해야 할 책은 3권.《일상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제2권과《균역법 연구》, 그리고 한국의 음식 문화사를 다룬 책이 그것이다.